

〈지네각시〉 설화의 분석심리학적 해석의 시론(試論)

이 현 주*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3. 분석심리학적 이해 |
| 2. 유화(類話) 검토 및 텍스트 읽기 | 4. 나가며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융(Jung)의 분석심리학적 방법으로 〈지네각시〉 설화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야기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한 남자가 자살하기 위해 산에 갔다가 지네각시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산다. 세월이 흘러 옛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를 만나고 각시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는다. 고심 끝에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각시를 살린다. 각시는 승천하고 남자는 옛집으로 돌아와 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산다. 분석심리학적 민담해석은 민담에 드러난 무의식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민담에 나타나는 원형상들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간 심층에 내재된 무의식의 원리를 체험하게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한다. <지네각시> 설화는 자살을 시도했던 중년 남성이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무의식으로의 여행을 통해 정신적 결핍을 극복하고 자기실현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네각시> 설화에 등장하는 지네각시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억압된 주인공 남자의 아니마(anima)가 인격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그녀는 남자로 하여금 전체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혈족으로 나타나는 구렁이는 부정적인 여성상(父性像)으로서 무의식으로 퇴행을 막는 권위적인 아버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남자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진지하고 경건한 태도로 내면세계를 돌아봄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되찾게 된다. 이것은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개신(改新)’이라는 원형적 주제의 되풀이로서 아버지로 상징되는 경직된 지배원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지네각시> 설화는 여성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여성성을 회복함으로써 자기실현에 이르는 한 남성의 이야기인 동시에 남성중심의 경직된 집단 의식이 무의식의 작용으로 변화되고 전체정신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이야기이다.

주제어 : 아니마, 영혼의 인도자, 여성 콤플렉스, 자기실현(개성화)

1. 들어가며

<지네각시> 설화는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광포설화이다. 일반적으로 지네가 인간 남성과 결혼하여 그의 도움으로 등천(登天)하거나 환생(還生)하였다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지네각시> 설화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시작되었지만 초기에는 이류교혼(異類交婚)설화, 용사(龍蛇)설화, 변신설화의 한 부분으로서 논의되었고 주로 지네각시의 신성성을 밝히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었다.¹⁾ 이후

독립적 유형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유형분류 및 서사 구조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전승양상과 의미, 전승집단의 의식 등도 고찰되었다.²⁾ 근래에는 문학치료학의 관점에서 정신치료전략으로써 설화의 활용 가능성을 논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³⁾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꾸준히 축적되어 오고 있으나 대부분이 변신담/보은담으로서의 내용에 주목하여 권선징악이나 배우자 또는 부에 대한 욕망이라는 한정적 주제과악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과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설화가 인간의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를 기저에 깔고 있는 만큼 작품에 내재된 심층적 의미 분

-
- 1) 초기 연구들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성과가 축적되었다.
배원룡, 『변신설화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2.
강희주, 『변신설화의 서사구조와 변신의 의미』,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3.
임갑량, 『뱀설화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1983.
김기창, 『이류교혼설화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4.
박종성, 『사신설화의 형성과 변이』, 서울대 석사논문, 1991.
이지영, 『용사설화의 측면에서 본 <지네치녀> 설화』, 『구비문학연구』 4호, 한국구비문학학회, 1994.
 - 2) 김정석, 『<지네각시> 설화의 전승과 그 의미』, 『민족문화』 제16집, 한국고전번역원, 1993.
이영희, 『<지네각시 설화>의 구조와 의미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1.
심민호, 『‘지네 여인 변신 설화’의 지역성과 전승양상』, 충남대 석사논문, 2002.
유진아,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의식세계』, 『정신문화연구』 Vol.39 No.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 3) 정운채, 『우울증에 대한 문학치료적 이해와 <지네각시>』, 『문학치료연구』 Vol.5, 한국문학치료학회, 2006.
정운채, 『여우구슬>과 <지네각시> 주변의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Vol.1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박재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에게 나타나는 편집증적 문제와 설화를 활용한 문학치료 방안』, 『다문화콘텐츠연구』 Vol.9,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김정애, 『설화 <지네각시>와의 서사비교를 통해 본 <황조가>와 그 전승양상의 문학치료적 의미』, 『겨레어문학』 54권, 겨레어문학회, 2015.

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분석심리학적 방법으로 <지네각시> 설화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작품해석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분석심리학적 민담해석은 민담에 드러난 무의식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민담에 나타나는 원형상(原型象)들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이를 통해 인간 심층에 내재된 무의식의 원리를 체험하게 한다. 민담을 해석하는 작업은 꿈을 해석하는 작업과 다를 바가 없다. 용은 꿈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한 두 단계의 접근법으로 객관단계와 주관단계의 해석을 제시하였는데, 꿈의 내용을 현실적인 인물이나 상황과의 관계에서 살피는 것이 객관단계의 해석이고 꿈의 내용을 꿈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적 내용의 표현으로 보고 그 상징적 뜻을 생각해나가는 것이 주관단계의 해석이다.⁴⁾ 이를 민담 해석에 적용하면 민담의 객관적 해석은 이야기 속 사건을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속 인물들을 실제 인물로 간주하거나 현실 대상의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주관적 해석은 이야기 속의 사건을 한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간주하여 그의 심리적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주관적 해석법을 취하여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난 원형상을 살피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파악해보려 한다.

2. 유화(類話) 검토 및 텍스트 읽기

<지네각시> 설화의 유형은 단순형에 속하는 적선형과 복합형에 속하는 금기과기형, 기만극복형, 과업성취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형(적선

4)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08a, 199쪽.

형)은 한 남자가 지네각시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고 선행의 결과로 각시는 승천하게 되었다는 단일구조의 이야기이다. 복합형은 적선담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건의 삽화가 첨가된 이야기로 다시 ‘금기파기형’, ‘기만극복형’, ‘과업성취형’으로 나뉜다. ‘금기파기형’은 남자가 지네각시가 제시한 금기를 파기하여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이야기이고, ‘기만극복형’은 남자가 지네각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구렁이의 기만적인 말을 듣지 않아 남자와 각시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는 이야기이다. ‘과업성취형’은 남자가 지네각시가 제시한 과업을 완수함으로써 그녀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각자의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지네각시> 설화 자료 90편⁵⁾ 가운데 ‘기만극복형’은 57편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네각시> 설화의 모든 유형의 유화 가운데 최초로 채록된 설화를 포함하여 채록 시기가 앞선 유화들이 대체로 기만극복형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단순형은 기만극복형에 기본구조가 포함되어 있고, 금기파기형은 수가 적을 뿐 아니라 결말의 비극성이 민담이 지향하는 낙관론에 위배되며, 과업성취형은 ‘용 싸움에 끼여든 남자’ —<한량과 황구렁이>, <황룡을 도와준 사람과 흑룡> 등 — 설화의 경우처럼 ‘승천경쟁담’의 한 유형으로서⁶⁾ 기만극복형에 <지

5) <지네각시> 설화 유형을 정리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각편 수에 차이가 있다. 이영희의 논문에서 가장 많은 편수인 90편으로 정리되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이영희, 앞의 논문 참조.

6) 승천경쟁담은 두 동물이 승천과 관련하여 인간의 도움을 받아 한편이 승천한다는 내용이다. <지네각시> 설화의 기만극복형에도 승천경쟁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승천경쟁담에 속하는 과업성취담에서는 여인이 사전에 모든 것을 인지한 후에 자의로 남자를 찾아오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경쟁자와 대결에 앞서 적극적으로 남자의 구원을 요청하는 설정이 나타나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과업성취담에서 부부의 인연 맺기에 관심이 없고 여인이 남자의 도움을 받는 설정이 강조되어 있는 반면 기만극복형에서는 일정기간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 핵심적 서사로 기능하며 여인의 구원요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과업성취형은 단순형과 기만극복형에 승천대결의 과정이 접목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지네각시> 설화의 전체 특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승천경쟁담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네각시> 설화의 고유의 특성이 가장 짙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만극복형’을 분석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기만극복형’의 유화목록은 다음과 같다.

설화제목	수록문헌	채록년도
1. 千年經つた蜈蚣と鶏	朝鮮民譚輯	1930
2. 지네미인	한국구전설화1	1936
3. 지네미인과 만난 사람	한국구전설화1	1937
4. The Rooster and The Centipede	Tales of a Korea Grandmother	1947
5. 지네와 동거한 총각	한국구비문학선집	1967
6. The Centipede Girl	Folk Tales from Korea	1970
7. 가난뱅이를 도운 지네	홍성의 민담	1971
8. 가난뱅이를 도운 지네	충청남도 민담	1971
9. 비슷한 이야기 1	충청남도 민담	1980
10. 비슷한 이야기 2	충청남도 민담	1980
11. 蜈蚣と靑大將との對決	韓國の昔話	1973
12. 천년 묵은 지네	충남의 구비전승(상)	1974
13. 용이 된 지네의 보은	과천 민담·민요집	1991
14. 지네 각시와 맺은 가연	한국 강릉지역의 설화	1997
15. 구렁이와 지네	설화	1998
16. 지네와 구렁이	한국구비문학대계 (1-4, 경기 남양주)	1980
17.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다툼	한국구비문학대계 (1-6, 경기 안성)	1981
18. 지네와 이무기	한국구비문학대계 (1-8, 경기 용인)	1982
19. 김정승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2-3, 강원 삼척)	1980
20. 천심에 의한 보은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 양양)	1981
21. 구렁이와 이시미의 용되기 경쟁	한국구비문학대계 (2-7, 강원 서원)	1983
22. 제 복은 제가 지고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 (3-2, 충북 청주)	1980
23. 용이 된 이무기	한국구비문학대계 (4-1, 충남 당진)	1979
24. 용이 된 구렁이	한국구비문학대계 (4-1, 충남 당진)	1980
25. 은혜 갚은 용	한국구비문학대계 (4-1, 충남 당진)	1980
26. 구렁이의 보은	한국구비문학대계 (4-2, 충남 대덕)	1980
27. 구렁이의 도움	한국구비문학대계 (4-3, 충남 아산)	1981
28. 죽음을 무릅쓰고 은혜 갚은 사람	한국구비문학대계 (4-5, 충남 부여)	1982
29. 정직한 사람과 변신한 지네	한국구비문학대계 (4-5, 충남 부여)	1982
30. 소금장수와 구렁덩덩 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4-6, 충남 공주)	1983
31. 지네 편을 들어 구렁이를 죽인 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5-3, 전북 부안)	1981

32. 지네와 지렁이	한국구비문학대계 (5-4, 전북 군산)	1982
33. 지네와 산 사람(1)	한국구비문학대계 (5-4, 전북 옥구)	1982
34. 둔갑한 지네	한국구비문학대계 (6-4, 전남 승주)	1984
35. 뱀과 지네의 득천싸움	한국구비문학대계 (6-11, 전남 화순)	1984
36. 공덕 쌓기	한국구비문학대계 (6-11, 전남 화순)	1984
37. 천년 묵은 여우와 의리를 지킨 남자	한국구비문학대계 (7-2, 경북 월성)	1979
38. 학자양반에게 굴러온 북	한국구비문학대계 (7-5, 경북 성주)	1979
39. 사람이 된 지네	한국구비문학대계 (7-6, 경북 영덕)	1980
40. 여인으로 변신한 지네	한국구비문학대계 (7-6, 경북 영덕)	1980
41. 여인으로 변신한 미꾸라지의 득천	한국구비문학대계 (7-9, 경북 안동)	1981
42. 미녀로 둔갑한 지네의 승천	한국구비문학대계 (7-10, 경북 봉화)	1982
43. 지네 덕으로 부자된 이야기(1)	한국구비문학대계 (7-11, 경북 군위)	1982
44. 구렁이의 은혜로 부자된 사람	한국구비문학대계 (7-11, 경북 군위)	1982
45. 사람 은혜로 득천한 독사	한국구비문학대계 (7-12, 경북 군위)	1982
46. 영감으로 둔갑한 쥐(2)	한국구비문학대계 (7-13, 대구 동구)	1983
47. 가난한 머슴과 천년 묵은 지네	한국구비문학대계 (7-13, 대구 북구)	1983
48. 천년 묵은 여우와 팔백이	한국구비문학대계 (7-13, 대구 수성구)	1983
49. 이무기 용되기	한국구비문학대계 (8-3, 경남 진양)	1980
50. 김동이와 지네각시	한국구비문학대계 (8-4, 경남 진양)	1980
51. 지네와 구렁이	한국구비문학대계 (8-5, 경남 거창)	1980
52. 지네를 만나 잘 살게 된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8-5, 경남 거창)	1980
53. 구렁이의 중매로 지네와 결혼한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8-5, 경남 거창)	1980
54. 지네의 승천	한국구비문학대계 (8-6, 경남 거창)	1980
55. 가난뱅이와 독사의 득천	한국구비문학대계 (8-9, 경남 김해)	1982
56. 반랍 박씨 시조와 지네	한국구비문학대계 (8-14, 경남 하동)	1984
57. 백여우와 지네	한국구비문학대계 (8-14, 경남 하동)	1984

여기서 임의로 선정한 29편 각편을 소개한다. 유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사를 추출한 다음 빈번하게 나타나는 변이들을 고려하면서 해석을 진행할 것이다. 29편 각편의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정직한 사람과 변신한 지네>⁷⁾

한 남자가 너무 가난하여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다. 자신의 무능함에 괴로워하던 남자는 설달그믐에 산에 올라가 목을 매어 죽기로 결심했다. 산중턱쯤 올라가서 죽을 자리를 보는데 멀리서 불빛이 다가왔다. 예쁜 여인이 등불을 들고 올라와 남자를 발견하고는 구원해줄 테니 자신을 따라가자고 했다. 여인을 따라 산 속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기와집 나왔다. 여자는 자신의 집이라며 남자에게 쉬게 한 후 저녁상을 차려 왔다. 같이 밥을 먹고 여인이 남자에게 말하기를 자신과 함께 살되 일 년에 두 번만 집에 다녀오라고 했다.

그렇게 둘은 같이 살았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자가 집에 다녀오는 날이 되었다. 여인은 집에 가서 인사만 하고 오라고 했다. 남자는 여인의 도움으로 가족들이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여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또 시간이 흘러 설달그믐이 되었는데, 여인이 오늘 가면 못 돌아 올 것이니 가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다녀오겠다고 하자 여인은 결국 허락했다. 남자는 집에 가서 부인과 자식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다시 여인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냇가에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려는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자를 부르면서 쫓아왔다. 아버지는 그 여인에게로 다시 가면 죽는다며 가지 말라고 하였다. 생각 끝에 남자는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불효가 되겠지만 여인 덕분에 다시 살게 되었으므로 여인에게 가지 않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남자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죽더라도 그 여인에게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지네이며 네가 살려면 담배를 물고 침을 모아 두었다가 침을 여인에게 뱉으라고 알려주었다.

남자는 집에 도착하여 방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문구멍을 뚫어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인은 아버지의 말처럼 벌건 지네가 되어 누워 있었다. 남자는 가만히 바깥으로 나와 '저 여인의 손에 죽어도 원통하지 않으니 저 여인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더니 지네가 다시 여인으로 변하여 맞이하였다. 남자는 아랫목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니 입에 침이 모였다. 이윽고 남자는 결심한 듯 일어나 침을 바깥에다 뱉었다. 여인은 놀라면서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

7) 『한국구비문학대계』 4-5, 충남 부여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665-671쪽.

느냐 물었고, 남자가 만난 아버지는 자신과 함께 살았던 구렁이이며 구렁이가 자신에게 남자를 뺏겼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여인은 승천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며 남자의 행복을 기원해주었다. 여인이 승천한 후 깨어 보니 집은 없고 바위너덜만 있었다. 남자는 부유하게 된 본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3. 분석심리학적 이해

꿈이나 민담을 해석할 때 제시부(exposition), 전개부(peripeteia), 절정(climax), 해소부(lysis)로 구성된 극의 구조에 맞추어 생각해보면 도움이 된다.⁸⁾ 다음은 <지네각시> 설화의 서사단락을 정리한 것으로 1)은 제시부, 2)·3)·4)는 전개부, 5)가 절정, 6)이 해소부에 해당된다.

- 1) 남자가 삶을 비판하여 자살하기 위해 산으로 간다.
- 2) 남자가 죽으려는 순간 예쁜 여인(지네각시)을 만나고 함께 여인의 집으로 간다.
- 3) 남자는 여인(지네각시)과 함께 살면서 보살핌을 받는다.
- 4) 돌아가신 아버지(구렁이)가 나타나 여인(지네각시)을 죽이라고 한다.
- 5) 남자는 여인(지네각시)을 죽이지 않는다.
- 6) 옛집으로 돌아와 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산다.

- 1) 남자가 삶을 비판하여 자살하기 위해 산으로 간다.

제시부는 그 민담이 가지고 있는 심리학적 문제성을 제시해주는 곳이다. 주인공 남자는 중년의 가장으로⁹⁾ 자신에게 지워진 삶의 무게를 견

8) 이부영,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2008b, 39-40쪽.

9) 주인공 남자의 상황은 가장인 경우가 가장 많고 노총각도 종종 나타나는데, 총각이 등장하는 유희에서는 대체로 지네각시와 결혼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때

디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 여러 유희들에 나타나는 가장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된 머슴살이를 하고, 피땀 흘려 농사를 짓고, 객지에 나가 갖은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고통스런 현실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음으로써 좌절한다. 이로 인해 남자는 삶의 무의미함과 공허함, 절망, 무기력감 등을 느끼게 되는데, 심리학적으로 가난은 ‘힘의 결핍’, ‘에너지의 결여’된 상황¹⁰⁾ 의미하고 남자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들은 자아의 정신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가부장제 사회의 아버지들은 가장으로서의 페르소나를 자신의 유일한 삶의 목표처럼 살아간다. 사회적 의무로 대변되는 페르소나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아는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없게 되고 무의식의 내면세계(심혼/아니마)와의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남성중심의 윤리와 유교이념을 지향했던 우리사회의 집단 의식은 남성들의 아니마 상실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다. 외부세계에 관심이 많을수록 남성의 아니마는 분화되지 못하여 미숙한 상태에 머무르고 부정적인 아니마에 사로잡히기 쉬운 상태가 된다. 그리하여 ‘아니마 기분’에 휩싸여 쉽게 화를 내고 자신이나 타인을 깎아내리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니마는 의식된 내면의 성찰, 내적인 힘으로서 인식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밖으로 표출되는 미숙한 아니마의 모습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공상이나 감정, 기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려는 고통스러운 결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아니마상이 내적 진실로서 무엇을

총각의 여정은 지네각시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결핍된 여성성을 통합하고 대극의 합일을 실현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궁극적으로 개성화, 자기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인공이 가장인 경우와 다르지 않지만 중년 이후의 과제로서 자기실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0) 이부영, 위의 책, 2008b, 38쪽.

의미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용은 중년(대개 35세 이상) 이후의 과제로서 아니마의 의식화가 특히 중요함을 역설하였는데, 이는 내면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자기실현, 또는 개성화가 중년 이후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중년 이전의 남성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남자로서의 역할만을 완수해 가는 것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이 없이 지낼 수 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지속적인 아니마 상실은 그의 생동감을 점진적으로 희생시키게 되므로 조로(早老) 현상과 더불어 성격상의 경직, 단조, 완고, 부질없는 원칙의 나열에 사로잡히는가 하면 반대로 체념, 피로, 게으름, 소아적인 연화(軟化), 책임감 상실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년 이후에는 원형적 체험 분야와의 관계를 가능한 다시 재건하고 유지해야 한다.¹¹⁾

위의 심리학적 사실을 토대로 주인공의 남자를 살펴보면, 그는 사회적 페르소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으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여 고통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치마저 부정하고 있다.¹²⁾ 물론 페르소나는 외부세계와 관계 맺기를 위한 필수적 기능이지만 지나친 외향화는 내적인 무의식과의 관계 상실을 초래하여 정신적 위기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의식이 무의식을 소홀히 하면 할수록 무의식의 콤플렉스는 대상적으로 의식에서 에너지를 빼앗고 의식을 압박하게 된다.¹³⁾ 주인공의 상태는 자아의식의 탈진 상태, 의식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간 상태로서 의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뜻한다. 자아의식의 재생을 위해서는 무의식

11) 이부영, 앞의 책, 2008a, 96쪽.

12) 페르소나가 강하면 개인을 비롯한 그 사회가 수평적인 사회가 되기보다는 수직적인 사회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은 상처받기 쉬우며, 사회로부터 격리와 차별을 받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알면 내면에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실체가 있음을 알고 오히려 힘을 얻게 된다. 박철안, 『중년기 우울증의 문제와 그 극복의 방안』, 『신학과 실천』 Vol.49, 한국실천신학회, 2016, 543쪽.

13)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1, 222-224쪽 참조.

속에 잃어버린 것들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곧 자아와 페르소나를 구별하고 무의식의 어둠 속에 싸여 있는 심혼(아니마)을 인식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진정한 자기를 찾고 살리지 못한 그의 전체정신을 찾아야 한다.

많은 민담 속의 주인공들은 무턱대고 집을 나가서 숲속을 헤매다가 무언가를 만나고 사건을 겪은 뒤 우여곡절 끝에 큰일을 해낸다. 일단 기존세계에서 나감으로써 찾음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자기실현의 시작이다. 90%이상의 유화에서 남자는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 산은 나그넷길과 상승의 목표를 나타내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흔히 자기(Selbst)를 의미한다.¹⁴⁾ 또한 산 속은 깊은 바다와 같이 어둡고 잘 볼 수 없는, 미지의 신비를 간직한 공간으로 무의식의 세계에 해당한다. 남자가 산으로 들어가면서 관심의 중심이 외부세계에서 내면세계로 이동하였지만 내계는 아직 알 수 없다. 산 속에서 자아의식은 무의식과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작업을 통해 자기실현의 험난한 여정을 겪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처럼 자기실현의 기회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온갖 고통과 정신적 위기에 처했을 때 찾아온다.¹⁵⁾ 원시사회 이니시에이션의 3단계가 고통, 죽음, 재생으로 이루어지듯 고통은 새롭게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통의 의미를 알고 진정한 자기 찾기에 정진한다면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고 새로워질 것이다. 그가 산 속에서 선택한 죽음의 장소들은 나무, 바위, 못(물)으로 나타나는데 나무, 바위, 못은 생성(生成)상징으로서의 여성원형상¹⁶⁾, 모성원형상¹⁷⁾으로 재생/부활의 의미를 지닌다. 정신적인 재탄생을 위한 기존 의식의

14) C.G.Jun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2002, 290쪽.

15)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2, 103쪽.

16) 이부영, 앞의 책, 2008b, 206쪽.

17) 강철중, 『남성의 모성 콤플렉스』, 『심성연구』 Vol.22 No.2, 한국분석심리학회, 2007, 82-96쪽.

죽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남자가 이 장소들에서 의식성을 다시 획득하고 힘을 얻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나무와 바위, 못은 자연적 무의식의 긍정적 측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남자가 죽으려는 순간 예쁜 여인(지네각시)을 만나고, 함께 여인의 집으로 간다.

남자가 어두운 산 속에서 목을 매려는 순간 또는 정신을 잃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난다. 현실에서 의식의 결핍이 드러날 때 무의식의 작용은 보상으로 나아간다. 즉 자살하려는 남자의 앞에 여인이 다가옴은 자기로부터 나온 합목적성을 지닌 작용으로서 무의식의 자율적인 대상기능에 의한 내적인격(아니마)의 체험이다.¹⁸⁾ 여인은 예외 없이 어둠 속에서 빛과 더불어 나타나는데, 빛은 남자를 구원해 줄 희망이자 깨달음의 원천으로서 무의식의 의식화 가능성과 그 시작을 알리는 상징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용의 언급은 참고할 만하다.

“정신이 자발적 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의식에서 유래하지 않은 모티프가 꿈이나 환상에 등장할 때, 변환, 즉 치유가 일어난다. 대부분의 경우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은 원형적 성질을 가진 내용이거나 그것과의 연결이다. 정신의 자발적 활동은 때로 아주 강렬해서 환상이 보이거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그러한 경험은 알 수 없는 미로에서 고통 받는 자를 위한 보상이 된다. 그때부터 혼란한 가운데 빛이 드리우게 되며, 자신 안에 있는 분열을 수용하고 그의 본성에 있는 병적인 분열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해소하게 된다.”¹⁹⁾

18) 자기원형의 작용이다. 무의식에는 전체가 되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투사를 하기도 하고 의무에 의해 살아가게 되는 페르소나 속에서 자신의 삶을 낭비할 때 목적을 가지고 그 힘을 분출한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부분으로 살지 않고 전체 인격의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힘으로 영향을 미친다.

19) C.G.Jung, “Psychotherapists or the Clergy”,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69, p.346.

대개의 민담에서 외딴 곳에서 등장하는 예쁜 여인은 부정적 성격의 살인 아니마(killing anima)로 나타난다. 하지만 <지네각시> 설화의 예쁜 여인²⁰⁾은 ‘구미호 설화’의 여우 여인이거나, ‘은혜 깊은 까치 설화’의 구렁이 여인과 같이 해를 끼치는 요괴가 아니라 남자를 안락하게 보살피 주는 유익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아니마의 긍정적 측면 중의 하나로서 중요한 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영혼의 인도자(psychopompos)로서의 역할이다.²¹⁾ 이를테면, 개인의 심리를 중심으로 볼 때 단테의 『신곡』에서 주인공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베아트리체, 괴테의 『파우스트』의 헬레나 등은 인도자로서의 아니마를 의미한다. 이 설화의 지네각시 또한 인도자로서의 아니마에 해당하며 남자로 하여금 깊은 통찰을 얻게 하는 무의식의 원형상으로 기능한다. 지네각시와 만남으로써 남자는 자신의 아니마와 마주하게 되고 각시의 인도 하에 자신의 내면, 심층으로 성찰의 모험을 떠나게 된다. 그 여정은 함께 각시의 집으로 가면서부터 시작된다.

집은 바깥세계로부터 인간을 지켜준다는 점에서 보호와 안식처를 상징하고 작은 우주에 비유된다. 신비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상자, 집, 벽, 울타리를 친 정원은 우주의 여성적인 양상으로 인식된다. 집은 또한 모든 사물들이 들어 있다는 의미에서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곧 전통을 상징하고 신화에서는 우주의 모형, 신을 모시는 신전이기도 하다.²²⁾ 이를 고려하여 각시의 집의 의미를 유추해보면 산 속의 기와

20) <지네각시> 설화 전체 90편 중 여인으로 등장하는 동물로 지네가 70%, 구렁이, 이무기 등의 뱀류가 20%, 그 외의 동물이 10%인 것으로 보아 뱀류와 나머지 동물은 지네의 변이로 봐야 할 것이다.

21) 아니마는 남자의 마음을 올바른 내적 가치와 합치하도록 하여 보다 깊은 마음의 심부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마치 내적 라디오가 어떤 주파수로 조정되어 관계없는 소리들을 배제하고 ‘보다 위대한 사람’의 소리만 들리도록 하는 것과 같다. 이 내적 라디오의 수신을 설정하는데 있어 아니마는 내부의 세계와 자기에게 안내자나 중계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C.G.Jung(이부영 옮김),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제3장 개성화 과정, 집문당, 1983, 186쪽.

집은 많은 것이 갖추어진 무의식의 보고(寶庫)로 새로운 변화가 가능한 공간—내면성찰의 공간으로 인격변환이 이루어지는 곳—일 수 있다. 각시는 죽게 내버려두라는 남자를 설득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그녀는 쉴 공간을 제공해주고 한상 잘 차려서 남자를 대접한다. 남자는 무의식의 심연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여성적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 각시의 집에서 의식적 에너지를 얼마간 회복하게 된다.

3) 남자는 여인(지네각시)과 함께 살면서 보살핌을 받는다.

남자를 집으로 데려온 지네각시는 겹상 후 함께 살 것을 제안하고 남자의 가족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한다. 그리하여 남자는 각시와 부부의 연을 맺고 각시가 주는 돈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며 지낸다. 지네각시는 대부분의 유화에서 대궐 같은 집에 거주하며, 그에게 마르지 않는 화수분처럼 돈을 내어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네의 상징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느 동물이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게 마련이지만 지네의 경우 우리 문화 속에서 주로 부정적 면이 두드러진다. 먼저 설화 속의 지네는 땅 속이나 굴, 또는 음침한 사당에 살며, 안개와 구름을 일으키고 농사와 기후조절, 인간의 생명과 질병을 다스리는 조절자, 지하계의 신이나 지배자로 등장한다.²³⁾ <지네장터>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숭배되는 지네, <굴바위의 지네>의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로서의 지네, <삼형제와 유물>의 병의 근원인 지네, <허미수(許眉叟)의 지네퇴치와 허적(許積)의 출생담>의 복수를 위해 환생한 지네, <지네를 죽인 며느리>의 불씨를 자꾸 꺼뜨리는 지네 등²⁴⁾이 그러하다. 위 설화 속 지네들은 어둠이나

22) 이승훈,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 푸른사상, 2009, 486쪽.

23)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543쪽.

24) <굴바위의 지네>, 최상수, 『한국민담전설집』, 통문관, 1946, 60-61쪽.

<삼형제와 유물>, 임동권, 『한국의 민담』, 서문문고, 1972, 179-181쪽.

<허미수의 지네퇴치와 허적의 출생담>, 『대계』 2-8, 688-690쪽.

그림자, 죽음과 같은 특징을 함축하는 해로운 존재로서의 공통성을 지닌다.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지네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설화도 있다. <용을 물리치고 절을 구한 지네>에서는 소와 사람을 잡아먹는 용을 퇴치하는 의로운 지네로, <견훤이는 천상에서 귀양 온 지네 아들>에서는 견훤을 탄생하게 한 천상선동(天上仙童)으로서의 지네로, <지네명당>과 <지네각시>에서는 부(富)를 가져다주는 지네로 등장하여²⁵⁾ 그들이 가진 상서를 드러내고 풍요의 능력을 발휘한다.

설화에 나타나는 지네의 양면성은 민속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일례로 풍수지리에 나타난 지네의 상징은 지역에 따라 때로는 부정적이고 때로는 긍정적이다. 상주시 북룡동의 경우 노악산 지봉인 홍암서원 뒷산이 지네 모양의 오공입지형(蜈蚣立地形)이다. 이 때문에 상주에 소년의 죽음이 많다는 믿음이 있어 그 액을 막고자 지네가 가장 싫어하는 밤나무를 심었다고 한다.²⁶⁾ 또한 남원 괴양리 양촌 마을에서는 지네혈을 눌러 주어야 마을이 평안하고 후손이 번창한다는 풍수관념을 지녀 오늘날에도 매해 ‘지네뱀기’를 하고 있다.²⁷⁾ 반면에 정읍 오공리에서는 김동수가 옥이 그 일대에서 지네명당으로 이름나 있는데 김동수 씨 집안은 이 집을 짓고 한 해 추수로 1천2백 석을 거두는 거부가 되었다고 한다.²⁸⁾ 이

<지네를 죽인 며느리>, 『대계』 8-13, 287쪽.

25) <용을 물리치고 절을 구한 지네>, 용인문화원<향토문화자료관>구비전승민담 (남부지역: 이동면-목리) http://ycc50.org/c_data/folktales_view.asp?id=83

<견훤이는 천상에서 귀양 온 지네 아들> 『대계』 5-1, 145-149쪽.

<지네명당>, 『대계』 6-2, 287-288쪽.

26) 상주조공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2_1_0&ccbaCpno=2333701400000

27) 남원삼동굿놀이, 한국민속대백과사전-세시풍속사 <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3444>

28) 지네 명당 김동수 가옥, 문화콘텐츠닷컴,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5&cp_code=cp1005&index_id=cp10050084&content_id

같은 재물과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서의 지네의 상징은 속신에도 반영되어 ‘방바닥에 지네가 기어 다니면 부자가 된다.’, ‘방 안에서 큰 지네가 나오면 돈이 생긴다.’, ‘방 안에 지네가 들어오면 복이 들어온다.’, ‘방 안에서 그리마(돈지네)가 나오면 부자가 된다.’, ‘낮에 천장에서 지네가 내려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지네를 죽이면 불행이 겹친다.’²⁹⁾ 등이 전승되고 있다.

그 밖의 민속으로 밤에 지네가 방에 들면 도둑이 든다하여 집안 구석에 담뱃재를 뿌려 놓기도 하고, 지네가 관절염이나 요통에 약효가 뛰어나다 하여 약재로 쓰는가 하면 다산(多産)을 상징한다 하여 한옥의 합각에 지네 장식(蜈蚣鐵)을 넣어 자식 낳기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다른 문화에서 나타나는 지네의 의미나 역할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문화 속에서 지네는 전갈, 뱀, 도마뱀, 두꺼비와 함께 오독(五毒)의 하나이며 단오에 술과 인을 섞어 갓난아이의 머리에 바르면 해를 물리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네는 보물 구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12자 길이의 지네가 붉은 구슬을 토해내어 노는 것을 보고 그것을 얻어 만사형통했다는 설화가 있다. 일본에서 지네는 신의 사자로 간주된다. 사이타마 현 사람들은 지네를 죽이지 않으며, 그림을 그려 신사에 바쳤다고 한다. 또한 오래전부터 뱀이 지네를 두려워하여 한 청년이 뱀을 도와 지네를 퇴치했다는 설화도 전해온다. 아프리카 서부에서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지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가 하면 자바나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네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 ‘지네’라는 단어조차 금기로 여긴다. 이집트에서 지네는 죽음의 신을 상징하며 타이티에서는 지네를 의신(醫神)의 그림자라 하여 죽이지 않고 지네가 병자의 몸 위를 기어가면 병이 완치된다고 믿는다.³⁰⁾

이상을 정리하면 지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두려운 존재로서 숭배

=cp100500840001&search_left_menu=

29) 최래옥,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 집문당, 1995, 81쪽, 152-153쪽, 271쪽.

30)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앞의 책, 544쪽.

대상이거나 병이나 죽음 같은 화(禍)를 불러오는 존재이고, 긍정적 측면에서는 생명력을 지녀 병을 치료하고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선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지네각시> 설화에서 지네는 여성이라는 점과 자신이 가진 재화로써 남자를 여유롭게 보살펴준다는 점에서 생명력과 풍요를 암시하는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네각시는 긍정적 아니마이며 각시가 지닌 재화는 아니마가 지닌 생명력 또는 심적 에너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을 뜻한다. 아니마의 작용으로 자아의식이 회복되고 아니마의 의식화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아직 미분화된 내면인격으로 무의식 속에 존재하므로 지네각시로 나타나는 원형상은 수성(獸性)을 겸한다.³¹⁾

남자와 오랫동안(대개 십년 혹은 그 이상) 함께 살면서 각시는 남자가 필요로 하는 것의 대부분을 충족시켜 준다. 여러 유회들에서 각시는 남자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는 것은 물론 남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씻겨주고, 좋은 옷과 음식, 돈을 마련해주고, 비단요로 재우기도 한다. 각시가 가부장제 사회에 걸맞은 헌신적·희생적인 여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식이 남성적인 성격일 때 정반대 성격의 아니마, 온순하고 섬세한 전통적 여성상을 띠게 되는 것과 관련된다. 각시의 헌신적·희생적 행위는 무의식의 차원에서 의식의 결핍을 보상하기 위해 나타난 무의식의 보상 작용이다. 아니마가 제공해주는 풍성한 에너지로써 그의 의식은 회복되고 강화가 가능해진다.

유회에서 나타나는 변이로서 각시는 남자에게 많은 돈을 주며 남김없이 쓰고 쓸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돈을 어디에 써야할지 몰랐던 남자는 각시에게 조언을 얻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돈을 쓴다. 남자의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자아는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에 머물면서, 내

31) 동물의 형상은 그것으로 표현되는 내용과 기능이 아직 인간 외부의 영역, 즉 인간 의식 너머에 있음을 가리킨다. C.G.Jun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앞의 책, 2002. 304쪽.

적인격(아니마)인 지네각시의 말을 들으면서 잠재력을 키워나간다.³²⁾ 여기서 남자의 모습은 마치 ‘아이’처럼 수동적으로 보인다. 이는 새로운 의식, 새로운 정신으로 다시 태어난 상황이기에 아직 의식이 미숙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가 어른으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더 높은 의식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앞서 몸을 씻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 또한 새로운 인격으로의 변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남성의 아니마는 네 가지의 발달단계와 관련하여 성숙된다. 첫 번째는 본능적이고 성적 수준의 에로스(원시적인 여성으로 이브의 이미지), 두 번째는 낭만적인 사랑의 수준(낭만적인 미인으로 헬레네의 이미지), 세 번째는 성스러우면서도 헌신하는 여성(성모마리아의 이미지), 네 번째는 성스러움을 초월한 지혜로운 여신(소피아 또는 모나리자의 이미지)으로 나타난다고 한다.³³⁾ 아니마의 의식화가 진행된다면 본능적인 생물학적 관계에서 지혜로운 영감과 의 관계로 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직선적으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마리아와 소피아의 단계로 나아간다.³⁴⁾ 많은 각편에서 각시는 예쁜 여인, 선녀 같은 여자, 꽃 같은 색시로 등장한다. 지네각시와 만나게 되는 밤과 산 속이라는 시공은 각시에게 낭만적이면서도 은밀한 이미지를 더해준다.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어머니처럼 보살펴주는 헌신적 모습은 성모마리아의 이미지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남자로 하여금 선행을 베풀게 하여 활인(活人)의 덕을 쌓도

32) 남성을 우월하게 보는 시대사조 속에서 남성이 아니마를 볼 경우, 그는 여성성을 열등시하는 남성의 집단적 의식의 태도를 극복하고 마음속의 여성성, 아니마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남성이 마음속의 아니마와 관계를 가지려면 여성성에 대한 저항을 버리고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 융이 자주 예로 드는 리터해거드의 말, “순종해야 할 그녀”와 슈피텔리의 “고귀한 여인”처럼 아니마를 높이 받들 줄 알아야 한다. 이부영, 앞의 책, 2001. 128쪽.

33) 이부영, 위의 책, 2001. 97-98쪽.

34) 이부영, 앞의 책, 2002. 142쪽.

록 하는 모습에서 지혜로운 여신의 이미지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지네각시는 낭만적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미인, 헌신하는 아내, 지혜로운 여신의 이미지를 고루 가지고 있어, 이 설화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니마가 중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4) 돌아가신 아버지(구렁이)가 나타나 여인(지네각시)을 죽이라고 한다.

지네각시의 세계에서 남자는 부유함을 누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속해 온 현실세계와의 관계를 마저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옛집에 가서 명절차례/조상의 제사를 챙기고 가족들의 안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적·집단적 관념, 이를테면 집단의식적 태도의 반영이다. 29번 각편에서는 2회에 걸쳐 집에 다녀오지만 대부분의 유회에서 1회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설화에서 주인공은 일단 무의식의 깊은 층에 도달한 뒤에는 과거의 현실, 즉 의식의 현실과 다시 연결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공은 무의식의 무한정한 꿈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숙된 아니마의 손길에 의해 이제는 의식적 에너지가 회복된 듯 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리학적으로는 의식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는 의식의 요청에 따라 집으로 간다. 남자는 각시의 도움으로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치르고 가족들이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각시에게로 돌아간다. 그런데 각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돌아가신 아버지(구렁이)를 만나고³⁵⁾, 아버지는 각시에게 가면 죽을 것이라며 담배 먹은 찹을 뱉어 그녀를 죽이라고 한다. 남자는 아버지의 말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에 빠진다.

35) 구렁이는 다른 유회들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부, 아버지 친구, 할아버지 친구 등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거역하기 힘든 권위를 가진 존재들이다.

여기서 구렁이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비롯하여 혈족(血族) 남성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금지와 충고로써 남자를 위협으로부터 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성상(父性像)³⁶⁾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각시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각시를 죽이라고 한 것은 자아가 무의식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아 무의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아버지의 원형적 역할³⁷⁾로서 발달 과정에서 아이의 약한 자아가 다시 엄마 품으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이며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는 위험한 경향을 막는 것과 관련된다. 의식이 충분히 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작은 어려움에도 무의식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늘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을 막으려는 금지원리는 부성원리로 경험되며 그상은 부성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지네각시를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령은 무의식에서의 의식의 퇴행을 막으려는 무의식 자체의 보상적 충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네각시> 설화의 결말은 각시를 죽이고 무의식의 세계에서 빠져나옴으로써 의식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끝맺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희들에서 남자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긍정적 결말을 맺게 된다는 점에서 부성상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36) 민담의 부성상은 한 개인의 부성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집단무의식에서 형성된 전형적 인물상이다. 민담의 부성상이 개인적 특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어떤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취하게 되는 규정적 모습이다. 이처럼 내용적으로 전혀 한 개인의 아버지와 관계하지 않지만, 부성원형은 부성 콤플렉스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 이유경, 『한국 민담에서 살펴본 여성의 부성 콤플렉스 -<심청전>과 <바리공주> 중심으로-』, 『심성연구』 Vol.25 No.1, 한국분석심리학회, 2010. 75쪽.

37) 아버지는 도덕적 계명과 금지의 세계를 나타낸다. 아버지는 순수한 본능적인 것에 대적하는 기능을 가진 정신의 표상이며 이것이 아버지의 개인적 성질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원형적 역할이다. 그러므로 그는 흔히 아들에게 신경증적 공포의 대상이 된다.(C.G.Jung, Symbols of Transformation, C.W.5, para.396.) 박신, 『부성 콤플렉스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심성연구』 Vol.19 No.1, 한국분석심리학회, 2004. 41쪽에서 재인용.

부성상에 대해 부연 설명하자면, 부성상은 정신(Geist)에 가까운 것으로 사고나 지성적 정신 활동, 나아가서는 종교 생활, 판단이나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나 원리이다. 또한 부성상은 정신의 역동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고무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부성상은 인류의 삶에서 형성해온 남성성 및 부성적인 것의 집약, 그래서 조상의 삶을 지배하던 모든 문화적 가치의 총체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부성상은 집단의 삶을 책임져온 지배적 통치력으로서 작용한다. 그래서 부성상은 전통적 가치규범 및 체제, 규율, 질서 및 교육정신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강요하는 상징이 됨으로써, 강력하게 종속되게 하는 부정적 영향력도 함께한다. 이는 한 번 정한 원칙이나 철칙을 바꾸지 않고 계속 고수하려는 보수적 성향이어서, 결국은 새로운 것으로 전혀 나아갈 수 없는 권위나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³⁸⁾

무의식의 공간인 지네각시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아버지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유교사회의 집단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부성상이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부성상의 영향아래 여성성은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였고, 무시하고 억압해야할 측면으로 여겼다. 각시를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령은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지속되어 온 여성(성)에 대한 억압,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성학대의 일면이며 남성들의 내적인격인 아니마의 억압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성성을 표현하여 살림으로써 분화·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근원적 원형인 부성상의 영향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부성상의 요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내면의 명령으로 주어진다. 때문에 남자는 각시에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은 큰 불효를 저지르는 일이 되므로 결단을 내리는데 고심한다.

38) 이유경, 앞의 논문, 2010. 69-70쪽.

남성에게서 긍정적 부성 콤플렉스는 권위를 잘 믿고 영적인 신조와 가치 앞에 기꺼이 복종하는 경향을 낳는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대로 자신의 삶도 그러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분화되지 않은 부자의 쌍이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옛 관습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자리에 자신을 두어 자신의 개별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버지와 그에 의해 대표되는 관습으로부터의 의식적 분화를 통해 진정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³⁹⁾ 특히 인생 후반기, 중년 이후에는 삶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 의식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다시 삶의 원천인 무의식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지배적인 아버지는 이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무의식으로서의 퇴행을 막는 아버지와 의 갈등이 생기게 된다. <지네각시> 설화에서 아버지와 각시를 두고 나타나는 남자의 갈등의 국면은 이 지점에 놓인다. 남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들을 위해 부지런히 살았던 사람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 앞에 좌절하여 무기력해지고 삶의 감흥을 잃어버려 자살에 이르게 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무의식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된다. 그 과정에서 만난 아버지는 아들의 무의식으로서의 퇴행을 막음으로써 도리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⁴⁰⁾ 이러한 측면에서 구렁이-아버지⁴¹⁾는

39) 개별성이란 도덕적 분별과 의미의 이해가 있어야만 얻어진다. 관습은 의식적으로 선택되고 획득된 삶의 양식에 의해서만 대치될 수 있다.

40) 위험은 부모 모두에게서 올 수 있는데 아버지는 퇴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머니는 퇴행하는 리비도를 자신이 흡수하고 지킴으로써 재생을 찾는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C.G.Jung, Symbols of Transformation, C.W.5, para504. 511. 543.) 박신, 앞의 논문, 2004. 47쪽에서 재인용.

41) 뱀(구렁이)의 상징성에 대해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뱀의 상징적 의미는 '불사', '재생', '영생', '길흉', '혐오', '유혹', '성인의 덕', '간사', '남근', '여근', '수호신', '인류의 원형', '태양', '달', '치유의 힘', '생명', '불신', '공포', '혼란' 등으로 정리되며(『한국문화상징사전』 326-330쪽 참조.) 뱀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는 문화적 상황에 따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농경문화 속에서 뱀은 달동물로서, 풍요, 재생의 힘을 지닌 존재로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이

부정적 부정상이라 할 수 있다.

5) 남자는 여인(지네각시)을 죽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각시에게로 가면 남자가 죽을 것이라 경고하였음에도 그는 각시의 집으로 간다. 각시가 지네라는 것을 알았지만 방안으로 들어가 각시가 아닌 바깥에 침을 뱉는다. 의식의 눈으로 본 그의 아니마는 지네의 모습이다. 각시의 겉모습은 징그럽지만 그 안에는 천상적인 인격이 숨어있는 것으로 자연 상태의 무의식 속에 감추어진 심혼을 의미한다. 남자가 각시의 정체를 확인하고 수용하기까지의 고통과 심적 갈등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일 수 있다.

부성상의 강력한 요구에도 남자는 각시를 죽이지 않는다.⁴²⁾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개신(改新)’⁴³⁾의 원형적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신화에서 반복되었듯이 이 주제는 아버지의 세계가 아들을 통해 새로워져야 함을 강조한다. 남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대목을 상기해보면,

는 뱀을 당신이나 지킴이로 여겨 보호하고 섬기는 신앙에서 비롯된 민속이나 풍습에서 두루 산견된다. 하지만 뱀은 위험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까닭에 한국의 설화에서는 주로 인간을 해치려는 사악한 존재 또는 부정적 인간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뱀이 등장하는 대표적 설화로 상원사 연기설화가 있으며 승천하기 위해 뱀이 승려들을 잡아먹는 설화도 있고, 욕심 많고 색을 밝히는 인간이 죽어 뱀으로 환생한다는 설화도 있다. 설화 속에서 뱀은 종종 인간으로 변신하는데 대부분 탐욕적이거나 게으르거나 호색한이거나 하는 등 부정적 속성을 가진다. <지네각시> 설화 속의 구렁이-아버지 또한 뱀의 부정적 의미가 투영된 대상으로서 타인을 해하려는 이기심과 독단을 지니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아들의 자기실현을 방해하여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태도를 통해 부정적 부정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2) <지네각시> 설화의 전체 자료(90편)를 통틀어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각편은 단 두 편뿐이다.

43) 이 주제는 성경이나 그리스 신화 등에서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 거세되고 통치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반복해서 볼 수 있다.

그는 차례/제사를 지내고 각시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그런데 남자가 만난 아버지는 죽은 아버지이며 낮에 나타난 귀신이다. 통념적으로 낮이 귀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간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이미 활동이 멈춰버린, 그리고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뜻한다. 게다가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고 자신의 제수를 마련하는 데 적극도움을 주었던 각시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시를 죽여야 한다는 이 권위적이고 무정한 아버지는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의식의 지배적인 질서로 대변되는 아버지의 경직성과 맹목성이 드러난다. 즉 아버지는 의미를 상실해버린 기존의 가치관의 상징으로, 죽은 아버지가 죽음의 세계로 보내져야 하듯 청산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아들은 새로워져야 하며 더 이상 아버지는 진정한 의미의 자신이 되려는 아들의 자기실현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남자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각시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쪽으로 결단을 내린 것은 아버지의 가치관을 의심하는 마음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그가 아버지로부터 새로워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듯 무의식은 남자의 마음속에서 기존의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함을 상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기존의 집단의식은 여성성을 수용하기보다는 억압할 것을 강요해왔다. 유교문화 속에서 여성은 발전가능성이 없는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었고, 여성성을 비합리성, 정감성, 예감과 직감능력이라고 할 때 이 또한 경시되어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성의 자아의식은 내면의 무의식 세계와 유리되고 아니마가 미분화된 상태로 억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네각시> 설화는 이 같은 가부장적·남성 중심적 집단의식의 일방성에 대한 성찰과 집단의식 아래 억압된 남성의 감정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여성의 역할이 늘어나고 여성적 측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직 집단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가치관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설화는 남

성적 의식의 일방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무의식으로 침잠된 여성적 측면의 살림과 통합이 요구되듯이 에로스와의 접촉을 상실한 기존의 집단 의식 또한 변화되고 전체정신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6) 옛집으로 돌아와 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산다.

궁극적으로 남자는 각시를 살림으로써 자신의 아니마를 통합하고 자기실현에 이르게 된다. 즉 부성의 원형의 힘에 이끌리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고유한 가치를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아니마의 분화와 성숙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것은 그가 결단을 내리기까지 무의식의 의도를 알기 위해 마음을 기울여 성찰하면서 의식화하려 노력한 결과이다. 분화된 아니마의 작용으로 남성적 의식은 새로워지고 풍성해진다. 그간의 각시가 나누어준 정을 생각하여 차라리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결정은 나보다 각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결말부에서 나타나는 변이로 각시는 환생하여 남자와 함께 살기도 하는데 여기서 각시의 징그러운 지네다리마저 감싸는 너그러움도 나타난다. 타인을 위한 희생과 배려, 포용하는 마음은 남성적인 영웅의 모습이기 보다는 부드러움이 갖는 남성 속의 여성적인 마음이다. 진정한 남성성은 고도로 분화된 능력과 분별력 그리고 따뜻한 여성성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남자는 여성성을 통합하여 정신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온전한 자기가 되는 여행을 마무리하게 된다.

남성의 자기실현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의식에 존재하는 그의 아니마를 인식하는 일이다. 자신의 아니마가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그리고 아니마가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가 스스로 이에 사로잡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 현실들에 직접 대면한다면 그의 아니마는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 내적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남자의 경우처럼 진지한 성찰의 태도로 자신의 아니마와 마주하고 의식화하려는 노력이 마침내 깨달음으로 이어질 때 아니마는 내면에서

섬세한 정감으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결말부는 ‘각시가 승천한 후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또는 ‘각시가 환생하여 남자와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다.’의 두 갈래로 마무리 된다. 아니마와 더불어 친숙해지고 동시에 그 영향에 맹목적으로 자신을 맡길 필요가 없어졌을 때 자기실현의 큰 난관을 통과한 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각시의 승천 또는 환생은 남자의 아니마가 분화되고 의식화됨으로써 전체정신에 도달하였음의 유비이다. 자기실현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 되면 개체의 고유성을 소홀히 하거나 억압함 없이 인간의 집단적 사명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충실하게 충족시키게 된다.⁴⁴⁾ 남자는 내면인격의 치유와 성장으로 정신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으므로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 개별적 존재로서의 창조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4. 나가며

지금까지 융(Jung)의 분석심리학적 방법으로 <지네각시> 설화의 해석을 시도해보았다. 분석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전 인격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향해 민담이 구성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분석을 시도할 때 인격의 성장과 치유로 연결되는 새로운 차원의 통찰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요약은 결론으로 삼는다.

<지네각시> 설화는 자살을 시도했던 중년 남성이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무의식으로서의 여행을 통해 정신적 결핍을 극복하고 자기실현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네각시> 설화에 등장하는 지네각시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억압된 주인공 남자의 아니마(anima)가 인격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그녀는 남자로 하여금 전체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44) 이부영, 앞의 책, 2002. 94쪽.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혈족으로 나타나는 구렁이는 부정적인 부성상(父性像)으로서 무의식으로 퇴행을 막는 권위적인 아버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남자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진지하고 경건한 태도로 내면세계를 돌아봄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되찾게 된다. 이것은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개선(改新)’이라는 원형적 주제의 되풀이로서 아버지로 상징되는 경직된 지배원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지네각시> 설화는 부성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여성성을 회복함으로써 자기실현에 이르는 한 남성의 이야기인 동시에 남성중심의 경직된 집단 의식이 무의식의 작용으로 변화되고 전체정신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이야기이다.

음이 지적한 것처럼 중년의 과제로서 자기실현은 아주 중요하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자기실현을 위해서는 외부의 역할이나 집단의 기준에 집착하여 않고 내향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개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의 단행본

-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1.
- _____,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2.
- _____, 『분석심리학』, 일조각, 2008a.
- _____,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2008b.
- 이승훈,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 푸른사상, 2009.
- 임동권, 『한국의 민담』, 서문문고, 1972.
- 최래옥,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 집문당, 1995.
- 최상수, 『한국민담전설집』, 통문관, 1946.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4, 1-6, 1-8, 2-3, 2-4, 2-7, 3-2, 4-1, 4-2, 4-3, 4-5, 4-6, 5-3, 5-4, 6-4, 6-11, 7-2, 7-5, 7-6, 7-9, 7-10, 7-11, 7-12, 7-13, 8-3, 8-4, 8-5, 8-6, 8-9, 8-14), 1979-1984.
- C.G.Jun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2002.
- C.G.Jung(이부영 옮김),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집문당, 1983.
- C.G.Jung, CW 11, “Psychotherapists or the Clergy”,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69.
- Marie-Louise von Franz(이부영 · 이광자 옮김),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융연구원. 2018.

학위논문 및 학술지논문

- 강철중, 「남성의 모성 콤플렉스」, 『심성연구』 Vol.22 No.2, 한국분석

- 심리학회, 2007, 79-151쪽.
- 강희주, 『변신설화의 서사구조와 변신의 의미』,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3.
- 김기창, 『이류교혼설화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4.
- 김정석, 『〈지네각시〉 설화의 전승과 그 의미』, 『민족문화』 제16집, 한국고전번역원, 1993, 171-196쪽.
- 김정애, 『설화 〈지네각시〉와의 서사비교를 통해 본 〈황조가〉와 그 전승양상의 문학 치료적 의미』, 『겨레어문학』 54권, 겨레어문학회, 2015, 55-86쪽.
- 박신, 『부성 콤플렉스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심성연구』 Vol.19 No.1, 한국분석심리학회, 2004, 33-64쪽.
- 박재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에게 나타나는 편집증적 문제와 설화를 활용한 문학치료방안』, 『다문화콘텐츠연구』 Vol.9,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101-134쪽.
- 박종성, 『사신설화의 형성과 변이』, 서울대 석사논문, 1991.
- 박철안, 『중년기 우울증의 문제와 그 극복의 방안』, 『신학과 실천』 Vol.49, 한국실천신학회, 2016, 533-554쪽.
- 배원룡, 『변신설화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2.
- 심민호, 『‘지네 여인 변신 설화’의 지역성과 전승양상』, 충남대 석사논문, 2002.
- 유진아,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의식세계』, 『정신문화연구』 Vol.39 No.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209-253쪽.
- 이영희, 『〈지네각시 설화〉의 구조와 의미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1.
- 이유경, 『한국 민담에서 살펴본 여성의 부성 콤플렉스 -〈심청전〉과 〈바리공주〉 중심으로-』, 『심성연구』 Vol.25 No.1, 한국분석심

리학회, 2010, 65-101쪽.

이지영, 「용사설화의 측면에서 본 <지네치녀> 설화」, 『구비문학연구』 4호, 한국구비문학회, 1994, 89-112쪽.

임갑량, 『뱀설화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1983.

정운채, 「우울증에 대한 문학치료적 이해와 <지네각시>」, 『문학치료연구』 Vol.5, 한국문학치료학회, 2006, 161-170쪽.

_____, 「여우구슬>과 <지네각시> 주변의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Vol.1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327-362쪽.

<Abstract>

Essay of Analytic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on Folktale, <Jinegaksi>

Lee, Hyeon-Ju*

This thesis attempted to interpret <Jinegaksi>, a folktale, by using Jung's analytical psychological methods. A man who decided to commit suicide went to the mountains and encounters a Jinegaksi and then, they were joined in marriage and lived together. After many years, he visited his old home and met his father on his way back and was ordered to take wife's life. After much consideration, he did not obey his father's order, but spared her life. Then, Jinegaksi ascended to heaven and the man returned his old home and lived happily while enjoying great fortune. The analytical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of folktales is to profoundly understand unconscious contents shown in them. Archetypal images appearing in folktales allow human beings to experience unconscious principles embedded in the depths of them, by symbolically exhibiting their psychological activities. <Jinegaksi>, a story in which a middle-aged man who tried to commit suicide gradually found happiness, show the process in which he resolved his psychological deficiency and at last achieved self-realization, by undergoing the journey to the unconsciousness.

Jinegaksi appearing in the folktale, <Jinegaksi> is the personified anima of the man, a hero who is suppressed in the patriarchal society,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nd she serves to guide him to realize his whole psychology. The serpent which appears as his kin means an authoritative father with a negative paternal image, who unconsciously prevents degradation. The man, however, refused his father and recovered the true self, by seriously and piously reflecting on his inner world. This is a repetition of the archetypal theme of 'reformation(改新) of sons by fathers', indicating that the rigid ruling principle represented by the father should be newly changed. <Jinegaksi> thus is a story of the man who achieves self-realization by overcoming the father complex and recovering his anima and it also suggests that the man-centered rigid group consciousness should be unconsciously changed and integrated.

Key Words : anima, psychopompos, father complex,
self-realization(Individualization)

■ 논문접수 : 2019년 3월 20일
■ 심사완료 : 2019년 4월 3일
■ 게재확정 : 2019년 4월 12일

